

# 설교 자료

## 미원주민선교주일



### 회개, 회심, 회복으로 가는 길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을 위한 미원주민선교주일 자료집의 일부이며 “회개, 회심,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꾸러미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을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이 자료는 2025년 5월 4일의 성서 일과표 본문인 사도행전 9:1~6 및 시편 30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로 모이면서,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회개와 회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1864년 유명한 감리교인 두 명이 샤이엔족과 아라파호족 부족원 23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샌드크릭 대학살(Sand Creek Massacre)의 비극적인 역사도 그러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감리교 뉴스 기사](#)를 참조하세요. 교회로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사역에 마음을 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1~6은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보도합니다. 초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지만, 그

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30편에는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는 깊은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회복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의 사명, 특히 미원주민 공동체가 직면한 불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와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불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의 실명은 그의 영적 상태를 반영했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개와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를 끼쳐왔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미원주민 공동체는 대량 학살, 강제 이주, 토지 강탈 및 문화 말살에 직면해 왔습니다. 샌드크릭 대학살은 그러한 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잊혀서는 안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6년 연합감리교회는 공식적으로 불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슬픔과 회개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해와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수반해야 합니다.



# 설교 자료

## 미원주민선교주일



시편 30편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모습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의 어둠과 가려진 눈을 뚫고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셨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심은 우리에게 과거의 해로운 방식에서 벗어나 정의, 평화, 화해로 형성되는 미래를 향해 가도록 요청합니다.

샌드크릭 대학살을 비롯한 다른 잔혹한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 회심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원주민 공동체의 번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부르심입니다. 202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샌드크릭 학살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대응”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학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족 대표들과 협상을 시작하여, 피해 부족과 교단 간의 ‘지속적인 치유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다
- 샌드크릭 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공공 기념관 건립을 지원한다
- 학살과 관련된 미원주민 유물 및 유골의 반환을 장려한다
- 조상의 땅에서 재산의 취득과 부족의 토지 소유권 확립을 지원한다

감독, 총회 기관 직원 및 샌드크릭 대표들은 2024~2028년 4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실천 방안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사도행전 9:1~6과 시편 3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 회심, 회복의 역사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불의에 맞서고 화해를 위해 노력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샌드크릭 대학살과 미원주민 역사에서 벌어진 유사한 잔학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회심으로 부르십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은 우리가 미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사역과 그들을 위한 의로운 노력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원주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며 수 세기 동안 소외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을 뜻합니다. 원주민의 목소리를 더 넓은 교회가 듣고,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계기로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미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불의가 초래한 고통과 아픔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치유와 정의, 화해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평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